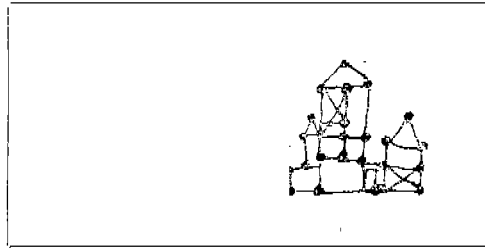


한국 간호사업의 전망



이 귀 향
<서울의대 간호학과 과장>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였고 또 전혀 경험할 수도 없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 오늘날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가속되는 현실 속에서는 진정 내일에 무엇이 올까 예측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토의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뜻있는 지식인들은 즐겨 자기 나름대로 알수 없는 미래를 예측해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어느 학자가 2,000년대를 진단하는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자의 말을 빌리면 2,000년대의 가정은 현대의 윤리관 혹은 제도와는 아주 다른 형태의 것이 되어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Recreation을 위한 가정과 다음으로 생산을 위한 가정으로 나누어 질 것이며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문제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윤리관을 아주 떠난 새로운 행태의 산아제한이 불가피할 것인데 아마도 머지 않은 앞날에 태어나는 모든 여자 아이는 불임을 위한 예방 접종을 받

고 필요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수속을 통해서 임신할 수 있는 면허제도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돕는 극단의 기계화는 결국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가와 에너지의 활용 내지는 분명한 생활 방식을 생산위주의 상태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Recreation으로 여가 선용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와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지식이나 변화하는 가치관의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심차히 생각하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구자의 입장과 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어떻게 어떠한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나 사물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 및 원리에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내일이던 의미가 희박해질, 이미 알려진 기존 지식의 습득보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에서 지식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치고 선진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으

로 선용해야 한다는 자세와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에 앞서 우리가 걸어온 과거를 돌이켜 봄으로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대 간호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세기말 외국 문화의 도입과 더불어 간호원의 직업체제가 갖추어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원의 준비 교육과정은 1,900년대부터 시작 되었는데 한국 여성의 직업교육으로 가장 먼저 개척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가지 종류의 간호교육제도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기독교 선교 간호원들을 통해 전해진 구미식 간호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세력을 배경으로 한 일본식 간호였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제도는 1945년까지 계속되다가 광복과 더불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행정기구내에 간호행정 부서가 설치되었으며 간호전문가들에 의하여 간호 학제의 통일과 수준 향상등 간호업무를 위한 행정체제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1946년 11월 간호사업국의 알선으로 각종 병원 간호원장들의 협조를 얻어 전국에 있는 간호원 면허 소지자 200여명이 병동 천주교 구내에 있는 文化館에서 해방후 처음으로 과거의 배경이나 소속의 구별없이 전국적인 간호원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나라 없는 설움에 국제 간호협의회 정회원이 못되었던 숙원을 당면문제로 토의한 결과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 하였습니다. 드디어 1949년에 국제간호협의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국제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정비되어 가던 간호학교와 의료보전 기관이 파괴되고 많은 인적 손실로 인하여 업무상 혼란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충만없는 간호사업이라 피란지 부산항 듯자리

방에서 간호사업을 계속하던 것을 상기하면 실로 감개 무량한 바 있습니다.

6·25동란을 통해 간호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더욱 새로워졌고 우방 여러 나라의 경제적 원호와 기술적 협조는 비약적인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간호교육에 있어서 최근 20여년간 괄목할만치 질적 수준이나 양적 성장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전통과 문화가 전혀 다른 풍토에 심어졌던 서구식 간호가 발전해 나아가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한국 간호사업이 시작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까지 간호의 한국화내지 토착화에 많은 난제를 남기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한국사회에서는 남존여비의 사상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을 천시하는 가치관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간호사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서구식 병원은 일반인에게 이질적이고 공포의 대상이 됐을뿐 아니라 외국원조에 의한 의료사업의 발족과 그 발전은 전체적인 건강 관리면에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오는 대신 진도 중심의 병원체제로 불균형한 발전을 가져와 오늘날까지도 병원중심의 간호사업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호교육 문제 역시 서구식 교육을 그대로 모방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간호교육 행정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나 되는 정규대학 과정을 설치하는 교육적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간호교육 기관이 각종 학교 범주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운했던 환경에서 자라난 한국간호체는 오늘날 서구식 간호이념을 완전히 소화도 하지 못하고

형식의 모방에 그쳤으며 한국적 주제성을 띤 간호의 이념내지 간호의 가치관도 확립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절에서 국민 건강관리의 일단을 책임진 지도자들로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 국가복지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획 및 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의료시설의 도시집중화 및 의료혜택을 입을 수 없는 많은 영세 시민들의 문제해보아 고도의 의료 발달과는 관련없이 무지와 빈곤과 미신에서 헤어나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이 병원 밖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건강유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호사업에서 간호에 대상이 되는 절대다수의 사람이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불매 진료중심으로 하는 현재 간호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하는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국민의 건강 관리자로서 임해야 할 자세를 확립하고 그 책임에 상부한 훈련과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게 하는 지위의 확보와 경제적인 뒷받침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간호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를 향한 간호원의 바람직한 자질은 간호의 이념과 가치관이 확립되고 창의성과 선도적인 태도에서 문제해결에 임하는 자세와 의료요원 및 사회 각 분야와 함께 협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자로서 향상 변화와 새로운 지식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인품과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고 일상과정이 아닌 상황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독

단적인 판단력과 기지를 함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질을 길러주기 위하여는 이미 알려진 지식의 전달에 치중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자세에서 지식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정신을 기르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학문에 대한 흥미를 기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통하여 계속 자기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의 함양이 요청됩니다. 또한 지식의 폭발시대라고 하는 만큼 모든 지식을 단시일에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이므로 학교 교육이후 훈련의 강화와 항상 연구하는 과학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고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간호의 이념과 방향의 모색도 간호의 한국적인 토착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또 건강관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국제화의 추세가 단순히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 하에 뿌리가 깊숙히 내린 객관화된 하나의 사실이라면 이런 추세에 대비키 위하여 어떤 힘이 필요한가?

첫째 힘은 미래를 보는 눈 미래에 대처하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문제의 분석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과거의 교육은 문제의 분석은 안하고 그대로 암기들 위주로 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문제 관찰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개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검토하고 사실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는가 하는 태도로 사고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정신이 합리적인 정신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상황속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겠습니다. 미래에서도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

래는 무엇이나? 그러한 바람이 있으면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처신하고자 하는 그런의지가 배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능력이 있다면 지도력입니다. 이 지도력의 기능을 얘기하면

첫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

둘째는 교육자입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진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사람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자를 말합니다.

셋째 통합자로(Inte)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협력을 안합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은 협력을 잘합니다. 동기가 부여되고 능력이 발휘되면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갖게 해 줍니다. 자신있는 사람들은 불신이 없으므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상호 신뢰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에 협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자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협력심이 많고 사회의 신뢰 기풍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이 지도력입니다. 강태를 진단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되어있는 오늘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에서 간호사업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주세에 역행하는 불행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시대의 요구와 함께 호흡하고 계속되는 변화에 대비한 준비와 항시 이런 사태에도 적응하고자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자신을 길러야 할 큰 과제를 우리 간호계는 의면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회, 서울시 지부

水災民을 위한 義捐金 救護品 전달

—8월 20일, 시내 병원 순회위문—

지난 8월 18, 19일 연이튿을 즐기차게 퍼부은 혹심한 暴雨로 인해 우리는 水害를 입고 귀중한 생명과 많은 재산을 잃었다.

軍, 警, 氏, 學生 합동으로 水害복구 작업에 나선 이때, 본회와 본회 서울시지부에서는 제해대책본부를 찾아가 각 병원의 입원환자를 검토하여 救護品으로 치술, 수건 등을 전달하고, 각 병원마다 순회 위문하는데 앞장섰으며 또한 이재민을 위해 보사부가 실시하는 방역사업에도 회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섰다.

또한 8월 2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義捐金을 마련하는 등 비상수단을 써

본 회 100,000원

본회 이사일동 20,000원

본 회 학 회 10,000원

본회 서울시 지부 30,000원을 의 연금으로 전달했다.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손해가 없었는지 염려하면서, 열벋고 굶주린 이재민을 위해 이웃을 돕는 자애심을 더욱 높여주기 바라는 것이다.